

제78호

순복음 Life

2022년 표어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시 65:10

발행일

2022.10.02

발행인

한승권 목사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원회

문서 위원회



목 차

1	-----	이달의 간증
3	-----	나 이렇게 산다
6	-----	이달의 기도
8	-----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10	-----	엄마의 편지
12	-----	새 찬양 배우기
14	-----	구역장 일기
16	-----	성경 사건
18	-----	숫 - 터뷰
19	-----	감사 릴레이
20	-----	오늘의 라떼
22	-----	대학 소개
24	-----	성경 퍼즐 게임
26	-----	주일 학교 소식
27	-----	틀린 그림 찾기
28	-----	시사용어, 성경단어
30	-----	찬양 예배
32	-----	일정 & 공지사항

이달의 간증

할렐루야,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전수진입니다. 올해 오랫동안 간절히 소망해오던 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도님들과 가족의 기도 덕분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침례도 받게 되어 다시 태어났다는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 글을 통해 부끄러운 지난날을 고백하고, 제가 만난 인내와 회복의 하나님을 간증해보려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집 근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성경에 대해 배우면서, 흥미롭지만 한편으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주일 아침마다 걸려오는 전화가 꺼려졌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도, 쓴물을 마셔보아도 그것의 의미를 전혀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외국으로 이주하신 할머니께서는 지금보다 열악한 통신 사정에도 저의 교회 출석을 크게 염려하셔서, 통화를 할 때마다 교회에 다녀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은 할머니께서는 “밥은 먹었니?”와 같은 사랑이 담긴 안부 인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던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거리에서, 학교에서, 터미널에서, 버스에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외면했습니다. 언젠가 학교 셔틀버스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농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공은 모두 표정으로 속으로 웃습게 여겼습니다. 단지 건네는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전수진 청년

이렇게 하나님은 제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주셨지만 오만하고 불손했던 저는 그 손을 뿌리치기 바빴습니다. 고백하자면 당시에는 나를 죄인이라 말하는 이들이 불편했습니다. 또 제가 죄인임을 부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리석은 저는 여름성경학교에서 걸었던 사탕 목걸이의 단맛에 대한 후에야 할머니께서 소천하신 후에야 모든 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무너진 후에야 감사 없이 오만하게 살아가는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수험 생활을 시작하고 저는 전에 없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늦어버렸고 너는 실패자라며 자책했습니다. 바깥 날씨와는 상관없이 마음 속은 매일 장마였고 우산을 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비를 맞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내의 하나님은 그동안의 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게 손 내밀어 우산이 되어 주셨습니다. 노량진에서 홀로 지낼 때 언니가 제게 보내준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에서 저는 참된 소망을 보았습니다. 나의 진정한 소망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가 죽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 건네신 손을 일찍 잡았더라면 저는 이런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의 실패까지도 저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음을 지금은 알게 되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내리는 비를 그쳐주셨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야 저의 소망들은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글을 너무 늦어진 저의 깨달음의 고백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나만의 명절 음식

원재옥 권사

-추석에 울 친정 3가정의 전 만든 사진입니다.



전수현 집사

-저희가족은 추석에
경주여행go~!
당진에 없는
한우물회
새콤달콤고소
완전 맛났어요 ^^



장명희 집사 - 제사가 없어지고, 가족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어서
힘들어도 기뻐했습니다^^



김소현 권찰

- 송편을 만들어봤어요!
이름이는 협조적,
하울이는 비협조적,
맛은 비현실적..
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이영선 집사

- 이번 추석은 오롯이
우리 가족만의 2박 3일
간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늘 아이들과 셋만의
여행이었는데 남편과
함께여서 더욱 뜻 깊고,
가족과의 화목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여행이
였습니다.



다음달 주제는

Q

가을이 오면 !

이윤경 집사님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기도

이병철 장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3:22)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종으신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생명들에게 풍요와 축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욱 크게 축복하여 주셨으며
우리 당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달이 전하여지는
여러 가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협력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3개월 남짓하게 남은 2022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며 이끄시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영혼이 살찌워지며 삶이 더욱 풍성하여지는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웁의 처참한 고난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과 정탐꾼의 핍박속에서도
끝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질병과 고통의 긴 터널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며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선을 베풀어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잊고
세상속으로 동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하고 쉽고 적당히 하려는 우리를
성전신앙과 섭리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문화 위원회



김정임 집사



이신애 권찰



'문화 위원회' 에서 하는 일은?

1. 문화위원회는 현재 성전 주차장에 있는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성도들과 세계 여러 가지 정보 및 자료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행사도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자하는 정보와 자료들을
저희 문화위원회에 주시면 게시판에
공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찰떡이를 소개합니다.

백송이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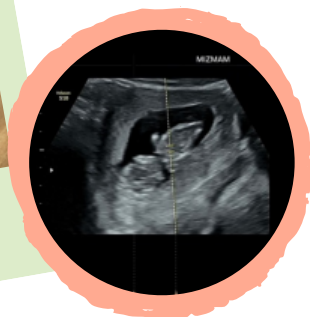
▼ 태명 : 주찰떡

▼ 태명의 뜻 : 찰떡같이 붙어있으면 해서 찰떡이..ㅎㅎ

▼ 출산 예정일 : 2022년 11월26일

▼ 태몽 : 찰떡이 할아버지(친정아빠)가 탐스럽고 큰~ 사과를 한아름 안고왔대용

▼ 찰떡이를 위한 기도제목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찰떡이를 위한 엄마의 편지

찰떡아 안녕. 엄마야

엄마랑 아빠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었다는 것과 찰떡이가 엄마 뱃속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 이외의 모든게 아직도 어색하고 신기해~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에서 엄마, 아빠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엄마, 아빠에게 선물로 보내주신거지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둘이 떠났던 제주도에서 찰떡이도 엄마, 아빠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왔지 ㅎㅎㅎ

찰떡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는 동안 조금의 어려움이 엄마에게 찾아오기도 했었는데, 그때 엄마랑 아빠는 알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구하라고 말씀 하시는구나.

찰떡이를 통해 엄마, 아빠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며 주인되신 하나님 오직 한분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구나” 하고 말이야!

엄마, 아빠도 매일 성전에 가서 찰떡이와 우리 가정을 위해 눈물로 함께 많은 기도를 했지만 성도님들 또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셨다는거 우리 찰떡이도 잘 알고있지?

이 다음에 꼭 감사하다고 인사 드려야해? ㅎㅎㅎ

엄마의 몸이나 감정의 여러 변화가 낯설기도 하고 아빠 또한 책임감과 여러 걱정들이 있을지라도 찰떡이로 인해 엄마, 아빠가 더욱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는 요즘 참 감사할뿐이야~ 엄마, 아빠도 열심히 준비할테 니까 찰떡이도 건강하게 쑥쑥 자라서 우리 곧 만나자.

-찰떡이가 하나님의 기쁨이자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길 바라는 엄마가-



새로운 찬양 함께 배우요!



안녕하세요 주일오전 찬양팀 김병관입니다 :)

이달의 찬양은

'예람 워십의 주님의 시선'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모두가 영적, 육적으로 병든것들이 회복되고

주님안에서 온전케 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 예람 워십 -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때
내 맘에 소망이 눈물 조각 될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뵙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뵙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뵙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뵙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람 위십 - 주님의 시선

A B $\flat$ C Am Dm B $\flat$ C

흐르는 시 간 이 한숨만 남 기 고 반복된 실 패 속 지쳐갈

8 F B $\flat$ C Am Dm B $\flat$ C

때 내맘에 소 망 이 눈물조 각 될 때 내곁에 다 가 와 부르시

B F B $\flat$ C Am Dm B $\flat$ C

16 네 주님의 시 선 나를비 추 시 고 상처난 내 맘 만지 시

24 F B $\flat$ C Am Dm B $\flat$

네 말씀하 시 고 회복케 하 시 네 주의사 랑 이

31 C F Fine 1. 2. B $\flat$

다 시 살 게 하 시네 흐르는 주를보 니 다

36 C Am Dm B $\flat$ C F

지금이 곳 에 서 주를보 니 다 지금이 곳 에 서

42 B $\flat$ C Am Dm B $\flat$

주를보 니 다 지금이 곳 에 서 주를보 니 다

48 C F 1. 2. D.S. al Fine

지금이 곳 에 서 주를 보 주 님 의

예배 전 찬양 시간에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일기

충성구역
김미진 집사

2022. 09. 18. 날씨: 참 좋네~

주일을 은혜롭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어제부터 몸에 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썼다.

하지만 주일 아침을 맞이할 때

그다지 컨디션이 좋지 못했다.

하나님께 하루를 부탁드리는 기도를 마친 후

그러도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척 침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하게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낮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잘 드렸다.

권찰회 헌신예배로 드려진 저녁 예배 후

선물은 컵라면이었는데.....

이정순 권사님께서 살짝 다가오시더니

당신 몫으로 받으신 컵라면을 다른 성도들 못보게

숨기듯 너게 얼른 건네 주시더니

잔 걸음으로 성전을 빠져 나가신다.

복적이던 그곳에서 구역장이라는 이유로

건네주신 컵라면 하나에 만감이 교차한다.

구역장 사명을 다른 어느 해 보다
 제대로 감당 못한 것 같아 조송한 마음이 크다.
 하지만 오히려 이정순 권사님도 우리 강유순 권사님도
 구역장을 염려하여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수술 후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최은주 집사님은 밑반찬도 몇 번 만들어다 주시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성전 청소가 힘에 겨워 염려했을 때
 회사 근무로 못 올 줄 알았던 정현미 집사님은
 소식도 없이 나타나 씩씩하게 청소를 도와주셨습니다.
 모두 다 교회 사랑과 주님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기에
 가능한 일이라....
 너게 남겨진 이 세상에서의 날수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
 그 삶 가운데 게을러질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그걸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또한 안다.
 오늘을 살아낼 모든 시간 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완벽한 순종을 드리자.



성경사건 배워요!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막7:5)

예수님의 제자 중의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항의했다.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유대교는 토라(주로 모세오경을 일컬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토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된 토라이고 또 하나는 구전적 토라이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는
주후 3세기 초에 유대 랍비가 수집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여
‘미쉬나’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



토라에 대한 실천적 적용을 담고 있는 미쉬나는
씨(농사), 축제, 여성, 손해, 성물, 정결 등 6개의 큰 항목이 있고,
이들 각각에 몇 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은
이 미쉬나를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정결 항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유대교의 전통적 규범에 대한 가르침인 미쉬나를 본문으로 하고
이를 해석한 것이 탈무드 형태이다.

주후 5세기에 유대에서 편찬된 탈무드를 ‘예루살렘 탈무드’라 하고,
바벨론 유배 이후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과
그 후 바벨론으로 이주한 유대인 학자들이 6세기에
더 광범위한 탈무드를 완성시켰는데, 이를 ‘바벨론 탈무드’라고 한다.

한편 바벨론 유배 때에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 대신에
회당을 설립하여 성경에 대한 주석과 해설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미드라쉬’이다. 미드라쉬는 해설 또는 해석이라는 의미이다.

교훈과 가르침의 ‘할라카 미드라쉬’,
이야기나 설화인 ‘학가다 미드라쉬’,
해설이나 주석인 ‘페세르 미드라쉬’가 있다.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적 유산인 전승과
성경연구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구전 토라인
미쉬나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기억하여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막7:8)



교회성도 췌-터뷰

Q 집사님이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짜릿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A 가장 짜릿했던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질문지를 보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어요. 크고 작은 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생각 났어요. 믿을 생활한 후의 제 삶이 많이 변해 있음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섭리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의 나 자신에 짜릿했습니다.

Q 집사님께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A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Q 코로나 이후 방역을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A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열심히 도와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Q 세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길 기도하시나요?

A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나라에서 쓰임 받으며 굳건한 믿음과 영성이 충만한 자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또한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Q 집사님이 요즘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요즘 저의 관심사는 울동헌신예배입니다. 샬라 집사님들처럼 우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워 차로 5분 거리의 조건에 자리를 찾게 되었고 급여조건과 주5일 근무도 그다지 나쁜 건 아니라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주간 2교대 라는점.,.

밤에 일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지만 기도하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관이 절 잘 보셨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했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배우고 조를 나누는데 또 고민이 생겨 기도했습니다. 저랑 성격이 전혀 다른 동생이 제 옆자리 파트가 되었는데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산만하여 그 동생이랑 다른 조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요. 역시 기도의 힘은...

저랑 성격 잘 맞는 언니랑 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졸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을 때도 가족들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첫째 영민이는 주말에 돌아오면 음식을 준비해주고 둘째 영찬이는 빨래, 셋째 은하는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일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고 기도하며 지내다 보니 하루하루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자: 인성자 집사

오늘의 라떼 - 이정애 집사

집사님의 어릴 적 추석은 어땠어요?

제가 살았던 곳은 태백이고 명절을 보내던 할머니댁은 경북 의성이었는데요, 추석이면 늘 전날 아침 일찍 엄마가 시내버스를 먼저 태워서 동생들과 함께 기차역으로 보내셨어요. 통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의성으로 가야 했거든요. 비둘기호 기차를 탔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께서 가방에 계란과 밤 등을 삶아 넣어 주셨고, 기차에서 사이다 사 먹으라고 돈도 쥐어주시곤 했어요. 기차에서 동생들이랑 사이다 사서 도시락 까먹듯 챙겨 주신거 맛나게 먹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댁에 도착하면 할머니께서는 제가 장녀다 보니 동생들은 낚두고 저만 데리고 장에 가시곤 하셨어요. 장에서 옷 사주시고 고무신 사주시고 하셨답니다. 저만요^^ 추석빔 같은 거였죠 ..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생생히 기억나네요.ㅎ

작은 아버지께서는 추석에 선물세트 선물상자에 과자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작은 아버지는 과자를 만들어 파는 일을 하셨는데 명절 때마다 오꼬시 과자를 아주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거 먹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시골에 가면 회관 같은 곳에 점빵이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서 과자 사먹고 그랬고요..

송편은 제가 솜씨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빚으시고 저희는 먹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6남매여서 사람이 많아 손도 부족하지 않았었죠. 명절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을 때는 먹는 순서가 있었어요. 1차는 남자 전체, 2차는 여자 어른, 3차는 여자 어린애들 이런 순서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 저는 맨 꼬찌로 밥을 먹곤 했어요. 그게 좀 그렇더라구요^^ 시골에 가면 삼촌들하고 산에 가서 밤 줍고 근처 호두나무 털어서 호두 깨 먹고 했어요.

개울가에서 발 담그고 삼촌들 등목도 시켜드렸는데 거머리가 무서웠지만 바가지 들고 가서 등목 시켜드렸어요. 거머리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럼에도 삼촌들한테 혼날까봐 물에 들어가서 등목을 시켜드렸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엄마가 식혜와 감주를 담가주셨어요. 그때 식혜는 지금 식혜랑은 달랐어요. 고춧가루 풀고 생강, 무, 밤등이 들어간 빨간 음료였어요. 달지 않고 매웠어요.

그리고 감주는 지금들 말하는 바로 그 식혜를 말하는 거였답니다. 그건 달고 맛있었고요.

그 시절은 지금처럼 먹을 게 많던 시절이 아니라서 먹을 게 풍성한 추석 명절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른답니다.





배재대학교

일반대학교

유진의 청년 (1학년/20살)

배재대학교 소개

- 배재대학교 (培材大學校, Paichai University)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 1885년 H.G.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을 모체하여 1895년 배재대학부를 설립하였다. 1979년 배재실업전문대학으로 개칭하였고, 1980년 10개 학과를 갖춘 4년제 배재대학으로 개편하였으며, 1992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다. 교훈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이다.

심리상담학과 소개

- 심리상담학과는 심리학과 상담학을 합쳐서 만들어진 학과로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병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과 입니다.

(병리현상=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따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질병에 빗대어 이르는 말.)

기독교대학의 특징

- 기독교 대학이라서 채플을 들으며 학교에 채플관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저의 담당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학교의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교수님들은 자신이 다닌 교회의 목회자님들을 통해 증명을 해내야한다고 합니다.

취업/진로 소개

-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교와 병원이 있습니다.

학교는 교직 이수를 통해 학교의 위클래스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병원에 취업하는 길로는 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환자들의 심리적 검사들과 상담을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는 직업입니다.

이 밖에도 상담소, 소년원, 교도소, 교육청, 군대, 일반적인 회사들에서도 상담사로써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과에는 이런 수업도 있다

- 지금은 학교 상담 미술치료를 배우고있습니다.

상담심리에서는 상담의 이론과 윤리에 대해 배우고있고 학교 상담은 많은 분들이 아는 wee클래스에 대한 시스템들을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미술 치료는 실습과 이론수업을 병행해서 배우고있는데 실습때는 그림을 그리거나 클레이를 가지고 만들거나 콜라주 같은 작업을 통해 본인의 의식과 무의식을 알아가고있습니다.



							1	재
						2	우	
					3	왕		
				4	부			
			5	거				
		6	돼					
		7	낙					
	8	아						
9	고							

가로

- 비가 올 때 쓰는 것.
- 왕의 부인은 뭐라고 부르지?
- 돈이 많은 사람.
- 작은 아들은 거지처럼 00를 떠돌아다니며 음식을 얻어먹었어.
- 작은아들은 배가 고파 00가 먹는 열매도 훔쳐 먹었다.
- 문어나 오징어처럼 빨판이 있고 다리가 8개인 해산물.
- 돌아온 아들의 애기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를 00하고 기뻐하실 거야. 00는 상대방의 잘못을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말한다.
- 부자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소00, 돼지00, 닭00, 양00 등의 온갖 00요리와 과일과 귀한 음식으로 잔치를 했단다.

세로

- 아버지 00을 먼저 물려받은 작은 아들은 결국 거지가 돼서 돌아왔단다.
- 비가 올 때 우산도 쓰고 00도 입으면 비를 덜 맞겠지?
- 작은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00처럼 살다가 돈을 흥청망청 모두 써버렸지? 00는 황의 아들을 말하는 거야.
- 찬양을 할 때 사람은 입을 사용하지만 새는 00를 사용하겠지?
- 거리에서 ‘한 푼 줍 쇼.’하는 사람.
- 우리에게 삼겹살을 주는 동물은?
- 화장실 벽에 00가 많지?
-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00를 가지렴.
- 00은 태어나서 자란 곳을 말한다.

〈지난달 정답〉

				제		을			
				사	마	리	아	인	
			사	장		브		도	
		레	워					네	
	시	몬						시	
상	인							아	이
사									옷

주일 학교 소식

다니엘 유초등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즐겁게 예배 생활도 하고 신나는 레크레이션도 진행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민속놀이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어떤 민속놀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을 했는데요. 바로 **제기차기**와 **투호**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어린시절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즐거운 놀이인 듯 합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환호성도 지르고 서로 응원도하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0월에 성경학교가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미루어지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틀린그림찾기

57개



밀크플레이션

‘밀크플레이션’은 우유를 뜻하는 밀크(mil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서, 우윳값이 오르면 우유가 들어간 아이스크림, 커피, 빵 등의 가격이 동시에 올라 장바구니 물가 인상을 불러오는 조짐을 일컫는 말이다. 서울우유의 원유 가격 기습 인상으로 정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유업체, 낙농가와 함께 낙농제도 개편을 마무리한 후 올해 원유가격 조정을 시작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량백신

‘개량백신(2가 백신)’은 기존에 유행한 바이러스는 물론 최근 유행했거나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 계통 바이러스에도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백신을 말한다. 방역 당국이 그동안은 접종 명칭을 정할 때 차수를 높여가며 ‘N차 백신’ 식으로 명명했지만, 2가 백신 접종부터는 독감(인플루엔자)과 유사하게 ‘22~23년 동절기 접종’ 식으로 시기를 중심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모유은행

‘모유은행’이란 건강한 산모에게 모유를 기증받아 모유가 필요한 조산아(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아(체중 2.5kg미만)의 아이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020년 신생아 사망의 58.1%는 미숙아 사망 사례였는데, 모유는 분유보다 상대적으로 영양가가 좋아 미숙아, 저체중아에게 특히 필요하다.

명절 증후군

‘명절증후군’은 명절 전후가 되면 온몸이 아픈 현상을 뜻한다. 두통, 신체 일부의 통증, 전신 근육통, 어지럼증, 붓는 증상, 감기 증상뿐만 아니라 심한 만성 피로 증상,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을 포괄해서 말한다.

shalom shalom (שלום שלום)

어느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na'im me'od! (נעים מאוד)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뜻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Nice to meet to you!

ma nishma? (מה נשמע)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How are you?

같은 표현으로는..

마 실롬하? (מה שלומך) - 남자에게 물어볼 때

마 실로메흐? (מה שלומה) - 여자에게 물어볼 때

히브리어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be'seder (בסדר)

가장 흔하고 많이 들을 수 있는 대답이죠.

다른 여러 상황에서도 '괜찮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OK, Alright, Well





찬양

2022.09.25.

예배





10

2022 |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 야외 예배	3 창립29주년기념 성전밧기기도운동	4	5	가을 여행 6	7	1 / 8
9	10	11	12	13	14	15
16 교회 창립 예배 집사회헌신예배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울동단 헌신 예배	31					

공지사항

1. 10월 생활실천표어 - 너는 자유케 하라
2. 성전밧기기도운동 - 10월 3일~15일 / 매일 1회 이상 : 시상함

이달의 서적



저 자 : 김창현

출판사 : 예수전도단

책소개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산다. 그리스도인의 평범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진짜 특별한 삶이다.

교우소식

1. 새가족등록 / 주영빈(백송이남편)성도
2. 결혼식 / 최하나청년, 11월 5일 오후2:30 설악웨딩홀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 사 모 : 010-7747-5278

윤희자 전도사 : 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 김미진 집사

위 원 : 박기숙 집사

이윤경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집사

유혜진 권찰

최하나 성도



우편번호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전화번호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 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



당진순복음교회